

# 전북대병원 “수련환경 개선하겠다”

### 강명재 병원장, ‘전공의 폭행사건’ 공식사과… 재발방지 위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병원이 26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전공의를 비롯해 참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성실히 수련에 임하고 있는 모든 전공의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 1년 차였던 A씨가 “선배 전공의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해당 병원 정형외과 3년 차 전공의인 선배와 담당 교수, 동료 등 3명으로부터 폭언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폭행사실과 함께 당시 근무표 허위 작성 등 전공의특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는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으면서 ‘숨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전북대병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개선이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징계에 대해 강 원장은 “이번 징계 내용은 전공의들의 안정적 인 수련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

력하라는 의미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자체 조사결과 수련현장에서 확인된 규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폭행사건은 검찰 조사 중이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상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민원으로 보지 않고 병원 전체의 수련시스템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병원 차원의 수련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행사건 근절대책을 포함한 수련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수련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병원과의 사례공유, 간담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전공의 고충상담센터 확대 운영 ▲수련의 폭력예방·인성 교육 강화 ▲전공의의 날 제정 ▲전문상담사·책임지도 교수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공의 고충상담센터는 실명 및 익명상담선으로 나눠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문제점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를 통해 제기된 민원은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인턴 오리엔테이션 때 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연 1회 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 예방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 바른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만취운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됐다.

완산경찰서는 26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A(36)씨가 지난 24일 오후 11시 53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8%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 주 소환 조사를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 민주당 간부 음주운전하다 잠들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4분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노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A(44,여)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차 안에 잠들어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위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 ‘전주비빔밥축제’ 해외 반응 뜨겁다

### 해외 방송 취재·외국인 체험객 증가 글로벌 명품축제에 한발짝 더 다가

유네스코 음식앙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에 해외의 반응이 뜨겁다.

26일 개막 당일 일본 NHK, 영국 웨일즈 공영방송 등 해외 방송사들의 촬영이 이어졌으며, 특히 일본 NHK는 비빔밥축제 개막식장 현장을 전세계 150여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KT&G 상상 UNIV. 등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관련 단체 등의 단체 체험이 축제기간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축제장을 찾고 있다.

전주시와 축제 조직위는 그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한류관광명소 1번지 서울 남산타워를 활용한 홍보,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대의 부스운영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공을 들여왔다.

또한, 한국어로만 운영되던 비빔밥 축제조직위 홈페이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축제 종합리플렛 제작도 외국어판을 추가로 제작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성원 관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더욱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2017 전주비빔밥축제’에 해외 반응이 뜨겁다. 26일 개막 당일 일본 NHK, 영국 웨일즈 공영방송 등의 촬영이 이어졌다.

## ‘야스쿠니신사 폭발’ 사건 전씨 “한국 이감” 호소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일본에 수감중인 전모(29)씨의 어머니가 한국 이감을 호소했다.

전씨의 모친 이상희(56)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면회를 갔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건강상태도 나빠보였다”

며 한국으로의 이감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들이 지난 4월 5일 국제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이감신청을 했다”며 “정부가 나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도쿄

## ‘인라인으로 도심 속 가을바람 가르다’

###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28~29일 개최... 7개부문 진행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갖춘 국내·외 인라인 선수와 동호인 5,000여명이 참가하는 ‘2017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송천동 인라인 톨러경기장에서 열리는 인라인 트랙경기과 29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전주시 일원을 누비는 인라인 마라톤경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인라인 마라톤경기는 42km오른 부분과 21km(창년부, 장년부, 단체부), 6km(초등부, 비경쟁)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10개국 29명의 외국선수와 국내 엘리트 선수 116명, 인라인동호인 참가자 4,855명이 참가하게 된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즐기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 스포츠로,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외국선수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세계대회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인라인 꿈나무 육성과 저변 확대는 물론, 해마다 타지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라톤대회가 진행되는 29일에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성모병원, 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 도로가 부분 통제되며,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량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 회삿돈 횡령 모 시내버스 업체 회장 실형

전주지법 형사 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 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 업체 회장 A(7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시 보조금 포함한 회사 수익 등 8억여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일 현금수입과 발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